



멋쟁이 그림책

내가 더 더 더 자라면



독후활동지
다운로드

아나 페즈 글·그림 | 김윤정 옮김

천천히, 조금씩 자라며 만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아이는 아빠의 커다란 신발을 신어 보며 어른이 된 미래를 꿈꿉니다. 수영장, 미술관, 모험 가득한 세상으로 기발한 상상력이 뿜어 나옵니다. “천천히 조금씩 자란다”는 아빠의 다정한 말처럼, 이 책은 모든 아이가 저마다의 속도로 멋진 어른이 되어 가길 따뜻하게 응원합니다.

- 책 속에서 페케는 좀 더 자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상상했어요.
이중에서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동그라미해 보세요.
또, 내가 자라서 하고 싶은 일을 더 써 보세요.**



혼자서 신발 끈 묶기
튜브 없이 수영하기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머물기
어울리는 옷을 마음대로 고르기
내 그림을 진짜 미술관에 전시하기
중요한 사람들과 모임 가지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운전하기
어린이들에게 멋진 모험 이야기 들려주기

2. 우리는 천천히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자랐는지 알아보까요?

아래 그림은 어른 손의 평균적인 크기예요.

손 그림 위에 내 손을 대고 그려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또 우리는 몸과 함께 능력도 자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못 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손가락 위에 써 보세요.



3. 어른이 된 나의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상상해서 그리거나 써 보세요.



4. 책 속에서 페케의 아버지는 나중에 자란 뒤에도
페케의 아버로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고
몸과 마음이 자란 뒤에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였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5. 마지막 페이지에서 페케의 아빠는 아이들이 잠든 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상상해요.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인가요? 그림을 보고 써 보세요.

Four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es for writing answers.



어른들의 꿈을 들어 본 적 있나요? 주변에 있는 어른 한 명을 인터뷰해서
미래에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을 알아 보세요.

꿈 인터뷰

이름 :

나이 :

지금 하는 일 :